

신주쿠뉴스

新宿ニュース



외국어판 홈페이지 <http://www.city.shinjuku.lg.jp/foreign/korean/>

각 담당부서에 문의할 경우는, 일본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23 호

2011 년 1 월 1 일 발행

발행 신주쿠구 지역문화부 문화관광국제과

전화 : 03-5273-3504

FAX : 03-3209-1500

우 160-8484 도쿄도 신주쿠구 카부키초 1-4-1



질병을 예방하자!



여러분, 바쁜 연말연시로 피로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겨울은 공기가 매우 건조하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겨울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분, 혼자 사시는 분 등은 특히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습니다. 이러한 감기와 감염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예방하는 습관을 생활화합시다!

만약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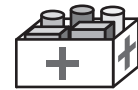
일본어를 모르는 분을 위해 ~ 도쿄도 보건의료정보센터 '히마와리' ~

'외국어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과 '일본의 의료제도' 에 대한 상담이 무료입니다.

전화 ☎ 03-5285-8181

일시 매일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오전 9시 ~ 오후 8시

대응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스페인어



감기를 예방하는 3 대 기본 습관

① 손 씻기

손은 밖에서 다양한 것을 만지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는 습관을 생활화합시다. 거품을 낸 비누로 15 초 이상 손가락 사이와 손목도 깨끗하게 씻은 다음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합시다.



② 양치질

목구멍도 손과 마찬가지로 공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므로 많은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 씻기와 함께 양치질을 합시다. 물 (또는 양치액 (gargle) 을 묽게 탄 것도 가능) 로 입 안을 헹궈 먼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물을 입 안에 머금고 위를 보고 목구멍 속까지 물이 닿도록 가글합니다. 이 가글을 2~3 회 반복합니다.



③ 영양과 수면

건강 관리의 기본은 영양을 골고루 함유한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식사는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부족하기 쉬운 야채와 과일 등을 적적 섭취합니다. 되도록 7 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생활화합시다.



병의 증상을 전달하는 일본어



병원에서 자신의 증상을 전달하기 위해 간단한 일본어를 소개합니다.

열이 있다	Netsu ga aru
배가 아프다	Onaka ga itai
머리가 아프다	Atama ga itai
기분이 안 좋다	Kimochi ga warui
기침을 한다	Seki ga deru
콧물이 나온다	Hanamizu ga deru
몸이 나른하다	Karada ga darui
구역질이 난다	Hakike ga suru
현기증이 난다	Memai ga suru
한기를 느낀다	Samuke ga suru
출혈을 한다	Shukketsu suru
화상을 당했다	Yakedo shita

외국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신주쿠구에서는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안내와 알림, 신주쿠구 일본어교실과 국제 교류 이벤트 정보 등 외국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청 본청사 1층 외국인 등록 대기 코너 또는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 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호는 2011 년 3 월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구청,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 출장소, 도서관 등 각 공공시설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20세 여러분께 성인의 날 '스무살의 모임'에 참가하십시오

일본에서는 20세가 되면 사회적 권리와 책임이 발생하고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성인이 된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식이 성인식입니다. 신주쿠구에서도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평상복으로 참가할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참가해 주십시오.

일시 1월 10일 (월·공휴일) 오후 1시~3시 (12시부터 접수)
장소 케이오우 플라자 호텔 (니시 신주쿠 2-2-1)
대상 신주쿠구에 외국인 등록을 한 1990년 4월 2일~1991년 4월 1일에 태어난 분
내용 기념식·입식 파티
문의처 총무과 총무계 (본청사 3층) ☎ 03-5273-4209



외국인을 위한 절분 (세츠분) 콩 뿌리기 체험

2월 3일은 '절분'입니다. 문자 그대로 계절을 나누는 날로서 이 날은 '입춘'이라 하여 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본에서는 '절분'에 '오니'와 '소토', 후쿠와 우치 (귀신은 밖으로, 복은 안으로)라고 외치면서 콩을 뿌려 액운을 쫓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만큼 콩을 먹으면 병치레를 하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행사 장소인 '키오우 (鬼王) 신사'는 이름에 '귀신 (鬼)'이 붙기 때문에 본래 (상기)의 의미와 달리 '오니와 우치, 후쿠와 우치 (귀신은 안으로 복은 안으로)'라고 외치면서 콩을 던지는 매우 보기 드문 콩 뿌리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해 보십시오.

일시 2월 3일 (목) 오후 2시~3시
장소 이나리 키오우 신사 (신주쿠구 카부키초 2-17-5)

비용 300엔 (새전 100엔 포함)

신청 전화, 홈페이지, 메일 이용 (마감 1월 27일)

문의처 신주쿠 미래창조재단 문화교류과 ☎ 03-3350-1141
www.regasu-shinjuku.or.jp/?p=352



국제 교류 구민의 모임 히나 마츠리



매년 연례 행사인 히나 마츠리의 이벤트를 통해 많은 외국인이 기모노 입어보기와 수목화, 꽃꽂이, 다도, 서도와 같은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당일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7단으로 장식한 히나 인형도 전시합니다.

일시 2월 26일 (토) 오전 10시~오후 3시 30분
장소 신주쿠 문화센터 3층 소규모 홀, 4층, 지하 1층 전시실
비용 500엔 (단,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
신청 필요 없음 (직접 행사 장소로 방문해 주십시오)
문의처 신주쿠 미래창조재단 문화교류과 ☎ 03-3350-1141



← 기모노를 입고 화려한 히나 인형들 앞에서 기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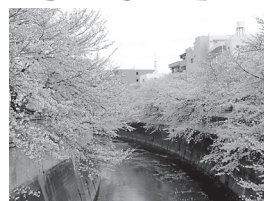
본인이 직접 그린 수목화에 대만족→

꽃구경 (하나미)을 즐기자

일본에서 '꽃구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벚꽃 구경을 의미할 만큼 일본인은 예부터 벚꽃을 사랑해 왔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에는 벚꽃 옆에서 친구나 회사 동료 등과 먹고 마시며 꽃구경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신주쿠 구내에도 꽃구경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 무렵에 절정을 맞이하므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즐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도청을 비롯한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울긋나긋한 분홍색 벚꽃이 탐스럽게 핀 풍경은 신주쿠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빼어난 경치를 자랑합니다.



칸다가와 (강)의 호안을 감싸안듯 핀 벚꽃은 매우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JR 이치가야역 ~ 이이다바시역 사이에 피는 벚꽃은 차내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약 65종 1,300그루의 벚꽃이 연이어 피므로 오랫동안 꽃구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엔, 초등학생 50엔입니다.

신주쿠구 일본어 교실 (1월 ~ 3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있는 교실에서 일본어 자원봉사자와 함께 즐겁게 일본어를 배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교실에 빈 자리가 있으면 도중에라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 상 입문 초급 레벨. 일상 생활에서 일본어가 필요한 분.
신주쿠구에 거주, 근무, 재학 중인 분을 우선 선발.
단, 중학생 이하인 분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일 시 월요일 ~ 금요일. 주 1회 교실과 주 2회 교실이 있습니다.
요일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학습 시간은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목요일만).

장 소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를 포함한 구내 각 지역
※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참 가 비 주 1회 교실 / 1,500 엔
주 2회 교실 / 3,000 엔
※ 일단 입금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신 청 12월 7일 (화) 까지 엽서 (우 160-0022 신주쿠구 신주쿠 6-14-1) 또는 FAX (03-3350-4839), 메일 (bunka@regasu-shinjuku.or.jp) 을 통해 신주쿠 문화센터로 보내 주십시오.
'①주소, ②이름 (후리가나), ③전화번호, ④국적, ⑤공부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 을 기입해 주십시오. 결과는 전원에게 12월 21일 (화) 까지 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문 의 처 신주쿠 미래창조재단 문화교류과 ☎ 03-3350-1141

탁아 서비스 제공

외국인을 위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일본어교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겁게 일본어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영유아인 자녀가 있는 분도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 시 1월 15일 (토) ~ 3월 19일 (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총 10회)

장 소 신주쿠 구립 오오쿠보 초등학교 (오오쿠보 1-1-21)

대 상 구내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 20 쌍 (선착순), 일본어 수준은 초급 ~ 중급인 분
※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외에 거주하는 분도 수강 가능

비 용 1명 500 엔



신 청 ①자녀의 이름 (후리가나), 연령, 자신 있는 언어, ②부모의 이름 (후리가나), 자신 있는 언어, ③주소, ④전화, FAX 번호, ⑤강좌명을 기입한 후 엽서 (우 160-0022 신주쿠구 신주쿠 6-14-1) 또는 FAX (03-3350-4839), E-Mail (bunka@regasu-shinjuku.or.jp) 을 통해 신주쿠 문화센터로 보내 주십시오.

문 의 처 신주쿠 미래창조재단 문화교류과 ☎ 03-3350-1141

봄 신주쿠 어린이 일본어교실

일 시 3월 26일 (토) ~ 30일 (수) 오전 10시 ~ 12시, 총 5회

장 소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

대 상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 · 학생
신주쿠 구립 초 ·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 일본어가 부족한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 · 학생
※ 2011년 4월 이후에 신주쿠 구립 초 ·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 아동 · 학생도 가능

비 용 200 엔 **정 원** 20명 (선착순)

★신청자에게는 자세한 안내서를 보내 드립니다.

주의: 일본어교실에 다닐 때는 사고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배웅과 마중 등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HIV/ 에이즈 성감염증 (STI) 은 가까이에 있는 질병입니다

신주쿠구 보건소에서는 상담 · 검사를 익명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HIV와 성 감염증은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성 감염증에는 자각증상이 없는 것도 있으므로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전염됩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감염 우려가 있는 분은 상담 · 검사를 받으십시오.

1 외국어로 실시하는 HIV 상담, 검사

【대응언어】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1) HIV/ 에이즈 전화 상담 TEL 03-3369-7110

【상담일】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단 태국어는 원칙적으로 월 2회, 검사일에만 실시합니다)

(2) HIV · 성감염증 (STI) 검사

【검사내용】 HIV · STI (매독, 클라미디아). 검사를 받을 경우는 접수 시간 내에 직접 검사 장소로 오십시오.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검사일】 원칙적으로 매월 2회 목요일

1월부터 3월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6일 · 1월 20일 · 2월 3일 · 2월 17일

3월 3일 · 3월 17일

* 결과는 일주일 후에 알려 드리므로 검사 장소로 오십시오.

【접수시간】 오후 1시 ~ 2시 30분

【장소】 니시 신주쿠 보건센터 (신주쿠구 니시 신주쿠 7-5-8)

2 일본어로 실시하는 HIV 상담, 검사

(1) HIV/ 에이즈 전화 상담

TEL 03-5273-3862 (보건예방과 보건상담계)

【상담일】 매주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2) HIV · 성감염증 (STI) 검사

【예약전화】 ※ 일본어로 실시하는 검사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TEL 03-5273-3859 (보건예방과 예방계)

※ 검사일 · 검사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신주쿠구 보건소 보건예방과 ☎ 03-5273-3859

더불어 사는 사회

다문화 공생이란 국적이나 민족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다문화 공생과 관련된 최근 소식들을 전해 드립니다.

작년 가을 새로운 난민 지원책인 '제3국 정주' 제도를 도입하여 미얀마 난민 수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난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난민'분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3국 정주'의 제도에 매진하고 있는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인권인도과 수석 사무관 오오바 유우이치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난민 지원책 제3국 정주 제도 ~ 올바르게 아는 것이 지원의 첫걸음입니다 ~



■ '제3국 정주'란 어떤 제도입니까?

‘그 이름 그대로 출신국도 일반 피난국도 아닌 제3국에 정주하는 제도입니다. 난민 분들은 다양한 사정으로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일시적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본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로 돌아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본국에도 돌아갈 수 없고 또한 일시적으로 대피한 나라에도 정주할 길이 가로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3의 나라에 정주할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시작하는 ‘제3국 정주’는 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을 미얀마(본국)도 태국(제1차 보호국)도 아닌 제3국에 해당하는 일본으로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 일본정부가 이 제도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배경은?

‘일본은 UNHCR(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서 일본도 국제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로서 ‘제3국 정주’ 제도를 도입하여 난민 수용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국제 공헌 및 인도적 지원이란 관점에서 시험적으로 ‘제3국 정주’ 제도를 도입하여 난민 수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미얀마 난민을 2010년도부터 3년간 시범 케이스로 매년 약 30명씩 총 약 90명을 수용합니다. 매년 수천, 수만 명 단위로 수용하고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인권인도과 오오바 유우이치 씨

있는 서구의 여러 나라에 비하면 수는 적습니다만, 아시아에서 ‘제3국 정주’ 제도를 도입하여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일본이 처음입니다.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의 본보기로서도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 지도 모습

■ ‘제3국 정주’ 난민이 일본에 온 이후의 생활은?

‘올해는 다섯 가족 27명을 수용했습니다. 언어, 문화, 습관의 이 모든 것이 다른 사회에 정주한다는 큰 결단을 내린 미얀마 난민 분들입니다. 작년 9월 말 일본에 온 이후 180일 동안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본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일본어 연수, 일본의 생활 관습을 익히기 위한 생활 지도, 직업 소개와 알선과 같은 취직 지원 이렇게 3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난민 분들이 정주하려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역 주민 분들과 시민 사회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 180일 동안의 ‘정주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전망은?

‘첫해의 최대 과제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실제로 난민 분들이 어디에 살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난민 분들을 고용하고 싶다고 연락해 주신 기업과 단체가 있으므로 이 분들의 조건과 난민



일본어를 학습하는 모습

분들의 조건이 일치하도록 서로 간의 교량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어는 180일 동안의 ‘정주 지원 프로그램’ 만으로는 충분히 습득할 수 없으므로 정주 후에 난민 분들이 실제로 지역 사회와 교류하고 일을 통해 습득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계속 직장 적응 훈련과 일본어 교육 상담원과 생활 상담원을 통한 정기적인 지도와 조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에 일본에 온 난민 분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완전한 미지의 세계에서 제2의 인생을 걸어가고자 하는 매우 의욕이 넘치는 분들입니다. 부디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사려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